

INSIDER
GUIDES
from GoUSA

독특한 뉴잉글랜드 마을

매사추세츠주 - 뉴햄프셔주 - 메인주 - 뉴햄프셔주 - 버몬트주
코네티컷주 - 로드아일랜드주

독특한 뉴잉글랜드 마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발, 메인주 케네버그포트 도착

1시간 32분/144km

메인주 케네버그포트 출발, 캠든 도착

2시간 7분/174km

메인주 캠든 출발, 바 하버 도착

1시간 43분/124km

메인주 바 하버 출발, 베델 도착

3시간 29분/294km

메인주 베델 출발, 뉴햄프셔주 노스 콘웨이 도착

1시간 2분/80km

뉴햄프셔주 노스 콘웨이 출발, 버몬트주 런던데리 도착

3시간 14분/297km

버몬트주 런던데리 출발, 매사추세츠주 스톡브리지 도착

1시간 45분/144km

매사추세츠주 스톡브리지 출발,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도착

2시간 8분/200km

코네티컷주 미스틱 출발,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도착

2시간 3분/195 km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출발, 보스턴 도착

1시간 15분/113km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보스턴의 풍부한 역사와 미국 독립전쟁에서의 결정적 역할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곳에 세계 수준의 박물관과 수많은 대학이 있으며 쇼핑의 천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유명한 올드 노스 처치(Old North Church)와 폴 리버 하우스(Paul Revere House) 등 16곳의 유적지를 지나는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탐방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에서 수많은 컬렉션을 감상하거나 과학박물관(Museum of Science)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전시물을 둘러보며 오후를(또는 하루를) 보내보세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이나 니콜스 하우스 박물관(Nichols House Museum)은 좀 더 친근한 느낌입니다. 롱펠로우 다리(Longfellow Bridge)로 찰스 강(Charles River)을 건너거나 'T(지하철)'을 타고 케임브리지(Cambridge)로 가서 아이비 덩굴이 얽힌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캠퍼스와 주변 카페, 서점 등도 둘러보세요. 백베이(Back Bay)의 복원된 갈

색 사암 건물에 고급 부티크들이 입점해 있는 뉴베리 스트리트(Newbury Street), 명품 브랜드 매장이 가득한 2층 규모의 쇼핑몰 코플리 플레이스(Copley Place), 100여 개의 이상의 매장과 노점상 및 50여 개의 레스토랑, 펍과 음식 가판대로 북적이는 유명한 퍼네일 홀 마켓플레이스(Faneuil Hall Marketplace) 등은 가히 쇼핑의 천국이라 할 만합니다. 스포츠 팬이라면 4~10월 시즌 열리는 보스턴 레드 삭스(Boston Red Sox)의 야구 경기를 안 볼 수 없죠.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메이저리그 야구장인 펜웨이 파크(Fenway Park) 투어도 꼭 해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보스턴 코먼(Boston Common)을 산책하고 퍼블릭 가든(Public Garden)에서 유명한 백조 보트도 한번 타보세요.

숙박: 보스턴





케네벡크포트의 케네벡크강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발, 메인주 케네벡크포트 도착

● ● ● ● ● 1시간 32분/144km

아름다운 뉴잉글랜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달리며 매사추세츠주를 여행해보세요. 1692년 끔찍한 세일럼 마녀재판(Salem Witch Trials)이 열렸던 세일럼은 유구한 해양시대의 역사, 빅토리아 양식 건축물과 거의 400년을 이어 내려온 신비한 이야기가 풍부한 다채로운 도시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맨체스터바이더씨(Manchester-By-The-Sea, 2016년 개봉해 상을 수상한 같은 이름의 영화로 유명해짐)와 **락포트**로 걸음을 옮기며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대자연을 감상해보세요. 전설로 남은 미국 화가 윈슬로 호머(Winslow Homer)는 이 지역에서 두 번의 여름을 보냈습니다(1873년, 1880년). 매력적인 락포트를 탐방하고 나면 뉴햄프셔주 **포츠머스**로 향해보세요. 1623년 건설된 포츠머스는 역사가 깃든 과거와 문화적 강점으로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작은 마을 가운데 하나인 뉴캐슬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콘스티튜션 요새 사적지(**Fort Constitution Historic Site**)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새 탐방이 끝나면 메인주로 출발해보세요. 첫 번째 목적지는 아베나키족이 이름을 붙인 **오건킷**으로, '바닷가의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빈티지한 감성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오건킷에서 특이한 건물 사이로 난 거리를 걸으며 마르기날 웨이(**Marginal Way**) 해안 도로도 즐겨보세요. 오늘 여행의 종착지 메인주 케네벡크포트는 대서양 연안에 있으며 케네벡크강(**Kennebunk River**)을 끼고 있습니다. 1600년대 건설되어 오랜 시간 조선포의 중심지로 활약하는 이 도시에서 바다를 향해하는 선장들이 살아가며 멋있는 저택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오래된 저택 일부는 여행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숙소가 되었습니다.

숙박: 메인주 케네벡크포트



캠든의 메건터콕호

메인주 케네벙크포트 출발, 캠든 도착

● ● ● ● ● ● 2시간 7분/174km

오늘 맨 처음으로 가실 곳은 올드 오처드 비치(**Old Orchard Beach**)입니다. 11km의 모래사장과 대서양을 향해 150m를 뻗어 나가는 올드 오처드 비치 피어(**Old Orchard Beach Pier**)를 즐겨보세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바닷가 도시 **포틀랜드**에서 이색적인 갤러리, 세상에 하나뿐인 가게, 다양한 레스토랑과 더불어 수많은 등대를 만나보세요. 시내에서 차로 30분만 가면 미국에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명소 가운데 하나인 포틀랜드 헤드 등대(**Portland Head Light**)도 나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시간을 마련해 예술 지구(**Arts District**)와 올드 포트 역사 지구(**Old Port Historic District**)를 탐방해보세요. 메인주 중부 해안을 따라 여정을 이어가며 뉴잉글랜드의 독특한 집과 평화로운 해안을 구경하다 놓치지 말고 브리스톨에 있는 페머퀴드 포인트 등대(**Pemaquid Point Lighthouse**)에 들러보

세요. 등대 자체도 아름답지만 등대 아래로 흔히 볼 수 없는 암벽지대가 펼쳐져 사진을 찍으면 멋진 작품이 탄생합니다. ‘페놉스콧만(Penobscot Bay)으로 가는 관문’으로 알려진 **록랜드**는 전형적인 항구 마을로, 시내에는 갤러리, 수공예 매장, 맛있는 레스토랑은 물론 걸출한 작품을 소장한 메인 등대 박물관(**Maine Lighthouse Museum**)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미는 현지인들이 ‘산과 바다가 만난 곳’이라고 부르는 **캠든**에서 장식해보세요. 맛 기행의 메카 캠든에는 매력을 뽐내는 작은 거리, 거대한 범선, 현지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가 있어 밤을 묵어가기에 완벽합니다.

숙박: 메인주 캠든

메인주 캠든 출발, 바 하버 도착

● ● ● ● ● ● 1시간 43분/124km

페놉스콧 만의 눈부신 해안을 따라 차를 몰아 메인주 해변의 심장부, **링컨빌**에 멈춰보세요. 여기는 대로에서 벗어나 냇을 잃게 하는 페놉스콧 만의 눈부신 절경을 감상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리고나면 그림 같은 **블루 힐**로 넘어가 여유만만한 매력을 즐겨보세요. 블루 힐에서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더불어 조선업에 뿌리를 살펴보고 아카디아 국립공원(**Acadia National Park**)을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운트 데저트 섬(Mount Desert Island)에 있는 **바 하버**로 향해 빅토리아 양식의 우아한 건축물을 구경해보고 프렌치맨만(Frenchman Bay)의 파란 바다와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삼림지대를 모두 즐겨보세요.

숙박: 메인주 바 하버





매사추세츠주 스톡브리지

매사추세츠주 스톡브리지 출발, 코네티컷주 미스틱 도착

● ● ● ● ● ● ● ● 2시간 8분/200km

스톡브리지를 뒤로하고 남쪽으로 차를 몰아 코네티컷주 해안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며 웨스트포트로 가보세요. 해안마을 웨스트포트에는 매력적인 붉은 벽돌 건물이 줄지어 늘어서 코네티컷주에서 가장 예쁜 풍경이 펼쳐지니, 잠시 들러 피크닉을 즐기거나 산책해보세요. 해안을 따라 계속 가다 만나는 올드 세이브룩은 캐서린 헵번(Katharine Hepburn)이 살던 곳으로, 지금은 캐서린 헵번 예술 문화 센터(The Katharine Hepburn Cultural Arts Center)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건축물과 훌륭한 건축물이 즐비한 여기는 점심을 먹기에 완벽한 마을입니다(영주가 살던 오래된 저택 및 세이브룩 브레이크워터 등대(Saybrook Breakwater Lighthouse) 등이 있음). 다시 길을 떠나 문화유산이 풍

성한 매력적인 바닷가 마을 미스틱으로 가보세요. 본래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던 이곳의 역사가 보존된 미스틱 항구(Mystic Seaport)를 방문해 미국에서 가장 큰 해양시대 박물관 가운데 한 곳을 관람해보세요. 메인 스트리트를 누비며 맛있는 해산물 레스토랑, 독특한 가게를 돌아보고 1988년 영화에 출연해 유명세를 치르는 미스틱 피자(Mystic Pizza)에도 가보세요.

숙박: 코네티컷주 미스틱

코네티컷주 미스틱 출발,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도착

● ● ● ● ● ● ● ● 2시간 3분/195 km

1번 고속도로를 타고 로드아일랜드주 내려갠셋에서 모래사장을 구경한 후 1a 고속도로로 진입해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하다 제임스타운 브리지(Jamestown Bridge)를 건너, 미국에서 부유한 동네로 유명세를 얻은 원조 마을 뉴포트를 방문해보세요. 뉴포트는 도금 시대 저택이 워낙 많아 지금도 호화로운 매력이 넘치는데 많은 곳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팬이라면 뉴포트에 있는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International Tennis Hall of Fame)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목적지는 오늘 여정의 마지막 코스이자 매력 만점인 케이프 코드입니다.

숙박: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출발, 보스턴 도착

● ● ● ● 1시간 15분/113km

해안마을이 모여 있는 케이프 코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보면 몇 주가 금세 지나가기 십상입니다. 케이프 코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마을이 내 스타일인지 조사를 좀 해보세요. 로어 케이프(Lower Cape)에는 북적북적하고 신나는 **펠머스**가, 아우터 케이프(Outer Cape)에는 집집마다 꽃이 그득한 올리언스와 모래언덕이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이스턴**과 **트루토** 등이 있습니다. 아우터 케이프 끝에 있는 **프로빈스타운**은 LGBT 친화적이며 활기가 넘치니 방문해 매력적인 가게, 갤러리와 레스토랑을 구경해보고 자연 그대로의 해변을 즐긴 후 고래 관광을 해보세요. 페리를 타거나 소형 비행기를 타고 케이프 코드에서 바다를 건너 아름다운 섬 마서츠 빈야드(Martha's Vineyard)와 난터킷(Nantucket)도 방문

해보세요. 케이프 코드는 여름에 가장 붐비며, 봄과 가을에는 인파가 한풀 꺾여 좀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코드 여행이 끝나면 '미국의 고향' **플리머스**로 향해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순례자들이 닳을 내린 장소를 느껴보세요. 플리머스 플랜테이션(**Plymouth Plantation**)은 꼭 가봐야 할 장소로, 척박한 땅에 미국 식민지를 건설한 개척자들의 흥미진진한 삶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플리머스를 뒤로하고 보스턴을 향해 길을 떠나 이제 여행을 마무리해보세요.

숙박: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INSIDER
GUIDES
from GoUSA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